



MBC,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

MBC가 오는 13일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수도권 지역 HD(고화질)방송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부터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방송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9년부터 재송신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두 회사는 일정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소송과 제도개선이 진행되면서 스카이라이프가 이익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케이블TV도 지상파를 대가 없이 재송신하는 만큼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업계 전반의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재송신료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MBC는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작

년 4월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케이블TV와의 재송신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왔으나 스카이라이프는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작년 9월 계약해지를 먼저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전체 가입자 300만명 중 MBC가 재송신을 중단하는 수도권 지역 HD가입자는 총 73만6000명이다.

이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HD채널에 한해 송출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SD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지만 HD화면에 익숙해있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BC 역시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방송 중단 내용과 재송신 중단 이후 MBC 시청방법을 알리는 자막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 대만과 미국이 종편의 미래를 말한다

1998년까지 케이블방송 매출의 15배의 시장을 형성했던 대만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3년에 케이블방송에 비해 3.7배 적은 시장으로 급격히 추락하고 만다. 대만에서는 그 5년의 시간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 3면

[칼럼] 차세대 디지털 전송방식의 MIMO 기술

MIMO 전송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전송용량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MIMO의 원리는 전송대역의 확장 없이 전송용량과 신뢰성의 향상을 위해 서로 다른 안테나를 이용한 공간 다양성으로부터 이점을 얻는데 있다. ▶ 4면

[인터뷰] KBS 실감방송연구팀

세계 최초로 실시된 고화질 3DTV 실험방송에 참여한 KBS 기술연구소 '실감방송기술팀'을 만나본다. ▶ 5면

방통위, OBS 역외재송신 확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OBS경인TV의 서울지역에 대한 역외재송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현재 경

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송출 중인 민영방송 OBS경인TV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평가보고서에서 “OBS의 서울 지역 재송신은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지상

파방송채널 재송신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방송프로그램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다만 방송광고 시장에서는 지상파방송 3사보다는 PP 광고수익을 잠식하여 취약 PP들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PP의 전체 광고수익 중 3.5% 내외로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서울지역 2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운데 13개 사업자에만 OBS 재송신을 허용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14개 사업자가 OBS 역외재송신을 신청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OBS회합조합지부(지부장 전동철)는 성명을 내고 “뒤늦은 사필귀정(事必歸正)··· ‘환영’보다 ‘유감’이 더 크다”는 표현으로 방통위의 때 늦은 결정

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OBS노조는 또, “방통위가 ‘경쟁’과 ‘산업’에 몰입하는 사이 대한민국 방송에 경인지역은 사라졌다”며 방통위를 향해 “종편사업자와 지역민방간 서로 다른 편성 규제의 폭을 최소화하고, OBS의 역외재송신을 IPTV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까지 확대해야 하며,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다양한 여론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OBS 역외재송신 확대 결정이 미디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우증권 변승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으로는 케이블SO 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며, 부정적으로는 미디어간 경쟁심화로 제작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등을 예상했다. 변 연구원은 “특히 OBS와 커버리지가 겹치는 SBS에는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다.

만평
제54화 김성훈

거저 먹는거야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상반기 중 확정 예정!!

디지털방송 이론과정

- 과정 소개 : 디지털방송에 관한 기본이론을 교육하여 방송시스템 개요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일정 : 1차 : 3월 30일~4월 1일(수~금/2박3일) 2차 : 5월 11일~5월 13일(수~금/2박3일)
- 장소 : KBS 수원 연수시설 이론 강의실
- 교육 커리큘럼

일차	시간	과목명	강사
1일차 수요일	09:30 - 10:00	교육안내 및 사전시험	진행자
	10:00 - 12:00	Video & Audio 압축개요(1)	(주)위트캐스트 김용구
	12:00 - 13:00	중식	
	13:00 - 15:00	Video & Audio 압축개요(2)	
2일차 목요일	15:00 - 18:00	Mpeg System & PSIP	EBS 정재우
	09:30 - 12:30	디지털 비디오/오디오 측정	Tektronix 권태석
	12:30 - 13:30	중식	
	13:30 - 16:00	디지털 방송기술 개요	KBS 김순기
3일차 금요일	16:00 - 18:00	미디어 환경변화	KBS 이종권
	10:00 - 12:30	N-Screen Service	
	12:30 - 13:30	중식	
	13:30 - 16:30	스마트미디어개론	
	16:30 - 17:00	사후시험 및 설문조사	진행자

상기 사항 및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방송사별 배정인원(총 28명)
KBS(10명), MBC(5명), SBS(3명), EBS(2명), 지역 민방 및 기타(8명), 추가 배정가능, 1, 2차 전체 배정 인원
- 접수방법 : 3월 29일(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digitalpro.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각사 교육담당자의 교육인원 확정 후 교육생이 직접 온라인 접수
- 기 타 : 교육비(무료), 교육생 출장비, 숙식비는 각사 자체부담, 기타 문의사항은 KBS 미래미디어 운영부 디지털 교육센터(02-781-5163~4) 수원 교육센터(031-219-8261~4)

지역 디지털 전환 과정(대구·경북권 방송기술 교육)

- 목적 : 디지털 방송기술 교육 개최로 지역 방송기술인의 디지털 마인드 확산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현장실무 및 뉴미디어관련 지식 및 정보교류로 지역 우수 방송기술인력 양성과 기능 활성화
- 세미나 일정
일시 : 2011년 04월 01일(금), 10:30~18:00
장소 : KBS 대구방송총국 8층 대 회의실
참석범위 : 대구·경북지역 지상파 방송사 직원
- 세부 계획

시간	교육 내용	강사
10:30~10:50	교육안내 및 방명록 작성	교육진행자
10:50~11:00	인사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KBS 대구총국장
11:00~12:30	Social Network와 방송	지우닷컴 김병철
12:30~13:30	중식	
13:30~15:00	Radio, Audio 파일시스템 운용	KBS 김기용
15:00~16:30	디지털 Video, Audio 기술	KBS 최무경
16:30~17:30	Smart TV : 구현사례와 시연	KBS 김한태

상기 사항 및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교육접수 : 3월 29일(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digitalpro.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각사 교육담당자의 교육인원 확정 후 교육생이 직접 온라인 접수
- 기 타 : 교육비(무료), 교육생 출장비는 각사 자체부담, 중식제공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방송협회 왕중남(02-3219-5569)